

# 朝鮮前期의 ‘專門醫女’에 관한 연구

-成宗代の 醫女 長徳과 貴今을 중심으로-

이민호,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 A Study on Chosun Dynasty Professional Woman Doctors

Lee Min Ho, Ahn Sang Woo\*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e Chosun dynasty woman doctors served important roles as professional doctors. Most of these woman doctors are believed to have been either assistants to their male counterparts or specialists for certain limited fields such as gynecology. Despite such circumstances, some woman doctors such as 장덕 or 귀금 were even mentioned in the 조선왕조실록 for their outstanding abilities. In such cases where a doctor was recognized for their skills, they were entitled to higher social status and/or financial benefits.

keyword: Chosun dynasty, woman doctor, Jang Duk, Gui Gum

### I. 서론

드라마 ‘대장금’이 방영된 이후 조선시대의 의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사실 의녀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미 1960년대부터 진행되었으나<sup>1)</sup>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이래 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sup>2)</sup> 의녀에 관한 선행연구의 중요한 특징은 그들의

출신 성분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과 많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여성의료인이라는 관점보다 오히려 신분적 한계에 기인한 ‘기녀화’된 의녀의 모습을 통해 조선시대의 봉건적이고 여성 억압적인 사회

\* 교신저자 : 안상우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한국한의학연구원 042-868-9443

E-mail : answer@kiom.re.kr

1) 1960년대 국내외에서 발표된 의녀 관계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두중, 「근세조선의 의녀제도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1, 숙명여대 아세아여성연구소, 1962.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自家出版, 1963.

김성균, 「한국어의제도창설략고」, 『백산학보』3, 1967.

한남혁, 「한국의녀고」, 『서울의대잡지』9권 1호, 1968.

2) 손홍열, 『한국중세의 의료제도연구』, 수서원, 1986.

성수현, 「조선시대 의녀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박선미, 「조선시대 의녀교육 연구-그 양성과 활동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박선미, 「영정조 연간 의녀제도의 변이양상과 그 교육적 의미」, 『국제여성연구소 연구논총』9, 2000.

문성희, 「조선후기 의녀의 활동과 사회적 지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안상경, 「조선시대의 의녀제도에 관한 연구」, 경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이민정, 「조선후기 의녀제도의 운영-17세기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미은, 「조선시대 의녀제도에 관한 고찰」,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최순예, 「조선전기 의녀제의 성립과 의녀의 활동양상」,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풍토를 비판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의녀들의 양성과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접근한 논문들도 다수 보이고 있다. 이들 연구는 제도적인 관점에서 의녀제도의 창설과정과 양성(교육),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활동상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의녀의 활동은 영역별로 고찰하거나 혹은 시기별로 나눠서 변천 과정을 추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조선시대 의녀에 관한 선행연구는 양적인 성장에 비해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나치게 제도적인 면에 치우쳐 있다. 또 그들의 활동 양상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의녀로서의 본업이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료인으로서의 의녀를 분석하기보다는 ‘의기’ 혹은 ‘약방기생’ 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면이 강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의녀들의 본업이라 할 수 있는 치료하는 의녀들의 모습을 조명하는데 특히 성종대의 의녀 장덕과 귀금의 사례를 통해 ‘전문의녀’의 존재와 그들의 양성, 전승 문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본론

### 1. 朝鮮前期 醫女의 養成과 그들의 活動樣相

조선시대 의녀제도가 시작된 것은 태종6년(1406)의 일이다. 당시 “檢校漢城尹知濟生院事 許衡은 부인이 병이 있는데 남자 의원으로 하여금 診脈하여 치료 하게 하면, 혹 부끄러워하여 그 병을 보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니 倉庫나 宮司의 童女 수십 명을 골라서, 脈經과 針灸의 法을 가르쳐서, 이들로 하여금 치료케 하자고 상언하였고, 태종은 제생원으로 하여금 그 일을 맡아보게 하면서”<sup>3)</sup> 시작되었던 것이다. 물론 궁중 내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거나 보조했던 여자는 이전에도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전문

적인 의료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설치한 것은 이 때부터라고 생각된다.

이어서 세종대에 이르러서는 지방에도 의녀제도를 두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을 중앙의 제생원에서 담당하였다. 이에 관한 실록의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참찬 벼슬로 치사한 許衡가 계청한 외방의 醫女는 먼저 충청·경상·전라도의 界首官의 관비 중에서 나이 15세 이하 10세 이상의 영리한 童女 각각 2명씩을 선택하여 選上女妓의 예에 의하여 奉足을 주어서 濟生院으로 보내어 본원의 의녀와 더불어 한곳에서 교훈하게 하고, 그 의술의 학습이 성취하기를 기다려서 도로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sup>4)</sup>

위의 기사 내용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조선전기 의녀에 충당되었던 대상은 10세 이상 15세 이하의 관비였다.<sup>5)</sup> 10대 초반의 어린 아동들을 의녀로 선출한 이유는 의학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된다. 의녀들은 노비계층으로 학문에 대한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이른 시기부터 교육 시켜야 20-30대에는 제대로 된 의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의술은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데 특히 통치자 계급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다른 잡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시되었고<sup>6)</sup> 숙련된 의녀를 양성하기 위해 그들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의학 서적이 모두 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문자 습득이 필요했고, 따라서 각 지방의 동녀들은 選上되기

3) 『太宗實錄』, 6年 3月 16日 丙午; 檢校漢城尹知濟生院事許衡上言: “竊謂婦人有疾, 使男醫(診) [診] 治, 或懷羞愧, 不肯出示其疾, 以致死亡. 願擇倉庫、宮司童女數十人, 教以脈經針灸之法, 使之救治, 則庶益殿下好生之德矣.” 上從之, 使濟生院掌其事.

4) 『世宗實錄』, 5年 12月 4日 辛亥; 禮曹啓: “參贊致仕許衡所啓外方醫女, 先將忠淸、慶尙、全羅道界首官婢內, 擇年十五歲以下十歲以上穎悟童女各二名, 依選上女妓例, 給奉足, 送于濟生院, 與本院醫女一處教訓, 待其成材還送.” 從之.

5) 관비로 의녀를 충당한 이유에 대해 손흥열, 1986, p.237에서는 첫째, 관비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마음대로 필요한 수만큼 선발할 수 있고, 둘째 이들은 천민이기 때문에 양가의 부녀와는 달리 쉽게 남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셋째, 이들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보내져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넷째, 이들은成才한 뒤 국가에서 그 업을 폐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6) 『成宗實錄』, 成宗13年 4月 11日 己酉에 “醫術은 사람의 생명을 구제하는 것이니 관계되는 바가 또한 중대하여, 다른 雜科에 비할 바가 아니다”고 하였다.

전에 출신 지방의 관청에서 문자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이에 관해 예조에서 올린 계는 다음과 같다.

濟生院의 醫女들은 반드시 먼저 글을 읽게 하여, 글자를 안 연후에 醫方을 읽어 익히도록 하고 있으니, 지방에서 선발하여 올려 보내려고 하는 의녀도 또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고을의 관원으로 하여금 먼저 『千字』·『孝經』·『正俗篇』 등의 서책을 가르쳐서 문자를 대강 해득하게 한 뒤에 올려 보내도록 하게 하소서.<sup>7)</sup>

각 지방에서 문자 교육을 받은 후 선상된 동녀들은 혜민서에서 본격적인 의학수업을 받았다. 의녀가 읽어야 되는 서적에 대해서는 성종년간의 ‘醫女勸課條’<sup>8)</sup>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直指脉』, 『銅人經』, 『加減十三方』, 『和劑(方)』, 『婦人門』, 『産書』 등이다. 진맥, 침구, 부인병 등 의녀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의학 지식은

資生經』 『和劑方』가 있었다.<sup>9)</sup> 의원들이 습득해야 하는 서적들의 내용은 같은 성종대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를 의녀들이 습득해야 하는 의서와 비교하여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1> 醫女와 일반 醫院들의 習讀醫書 비교표<sup>10)</sup>

의녀는 능력과 직책에 따라 크게 內醫, 看病醫, 初學醫의 3등급으로 나누었는데 내의는 달마다 급료를 지급받았고, 초학의는 간병에 배정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케 하였다.<sup>11)</sup> 의녀 교육을 수료한 후 이들은 본격적으로 의료 활동에 참여하였는데 그들의 활동은 다음 몇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여성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전문적인 의료인으로써의 활동으로 환자에 대한 진맥과 침구 활동이다. 둘째, 命藥活動으로 환자의 증세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醫女의 習讀醫書		일반 醫員의 習讀醫書	
年度	習讀醫書	年度	習讀醫書
成宗9年	『直指脉』, 『銅人經』, 『加減十三方』, 『和劑(方)』, 『婦人門』, 『産書』	成宗2年	春等: 『素問』 『本草』 『直指方』 『纂圖脉』 『外科精要』 『瘡疹集』 秋等: 『張子和方』 『得效方』 『婦人大典』 『傷寒類書』 『資生經』 『和劑方』
		成宗3年	春孟朔: 『纂圖脉』 『瘡疹集』 『直指方』 夏孟朔: 『救急方』 『婦人大典』 『得效方』 秋孟朔: 『胎産集要』 『銅人經』 『和劑方』 冬孟朔: 『本草資生集』 『十四經發揮』
		經國大典	『纂圖脉』 『銅人經』 『瘡疹集』 『直指方』 『救急方』 『婦人大典』 『得效方』 『胎産集要』 『和劑方』 『本草』 『經國大典』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었지만 남의들과 비교하면 질적·양적으로 하위의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익혀야 하는 의서로는 예를 들면 성종 2년 예조에서 교정청에 내린 단자의 조목 중에서 발췌하면 春等に 『素問』 『本草』 『直指方』 『纂圖脉』 『外科精要』 『瘡疹集』, 秋等に 『張子和方』 『得效方』 『婦人大典』 『傷寒類書』 『

환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접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부녀자에 대한 命藥도 남의가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간병인으로서의 활동이다. 넷째, 産婆 혹은 助産의 역할이 있다. 하지만 의녀는 시대상황에 따라 수사 보조나 시체의 검시, 사망 여부의 확인, 사약의 수발, 왕실의 의장대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비의료

7) 『世宗實錄』, 5年 12月 27日 甲戌; 禮曹啓: “濟生院醫女, 必先讀書識字後, 習讀醫方。 請外方選上醫女, 亦令所居各官, 先教『千字』、『孝經』、『正俗篇』等書, 粗解文字後上送。”  
8) 『成宗實錄』, 成宗9年 2月 16日 己酉.

9) 『成宗실록』, 成宗2年 5月 25日 丁酉.  
10) 박선미, 1994, pp.50-52의 <표1· 2> 참조.  
11) 『成宗實錄』, 成宗9年 2月 16日 己酉.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sup>12)</sup> 심지어는 의기 혹은 약방 기생으로 연회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 2. 成宗代의 ‘專門醫女’ 長徳과 貴今

의녀는 산부인과 방면 등 몇몇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의 영향을 받은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았고, 그 때문에 후세에 이름을 남긴 이가 많지 않다. 특히 『실록』에 그 이름이 거론되는 예는 극히 드물다.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몇 명이 보이고 있지만 궁중 내 중요 인물의 치료에 특별한 공이 있는 경우<sup>13)</sup>를 제외하면 간통 사건에 연루된 경우나 왕을 비방한 혐의로 국문을 받는 경우 등 부정적인 기사<sup>14)</sup>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남의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할 것이다. 남의들에 비해 의녀들의 실명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들의 출신 성분이 매우 낮고 또 그들의 업무가 매우 다양한 방면에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대우나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점에서 성종 시대 장덕과 귀금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명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에 관한 실록 기사는 다음과 같다.

우승지 권경희가 아뢰기를, “제주의 의녀 장덕은 齒蟲을 제거시키고 코와 눈 등 모든 부스름이 난 것도 제거시킬 수 있었는데, 죽을 무렵에 그 기술을 私婢 貴今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나라에서는 免賤시켜 女醫를 삼아 그 기술을 널리 전하고자 하여 두 여의로 하여금 따라다니게 하였는데, 귀금이 숨기고 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즈음 黃乙이라는 자가 蠱毒<sup>15)</sup>을 잘 다스리는데, 숨기고 있다가 세 차례나 刑

問한 다음에야 말하였습니다. 여의 粉伊는 그 기술을 배웠으나, 황을만은 못하니, 이는 그 기술을 다 전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청컨대 귀금을 고문하여 물어보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귀금을 불러서 묻기를, “여의 두 사람으로 하여금 따라다니게 하였는데, 네가 숨기고 전해 주지 아니하니, 반드시 그 이익을 독차지하고자 함이 아니냐? 네가 만약 끝까지 숨긴다면 마땅히 고문을 가하면서 鞫問하겠으니, 다 말 하라.” 하자, 귀금이 말하기를, “제가 일곱 살 때부터 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여 열여섯 살이 되어서야 완성하였는데, 지금 제가 마음을 다해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익히지 못할 뿐입니다.” 하였다.<sup>16)</sup>

위의 기사는 조선 전기 의녀 가운데 전문적인 치료술의 습득과 전승 그리고 그들에 대한 대우 문제 등을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우선 장덕이 치충을 제거시키고 코와 눈 등 모든 부스름이 난 것도 제거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통해 장덕은 이 분야에 관한 한 전문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녀의 치료술이 유명했던 것은 成倪(1439~1504)이 『慵齋叢話』에서 “의술은 알지 못하지만 치충 제거에 능숙하여 사대부 집안에서 서로 다투어 맞이하여 치료하였다”<sup>17)</sup>고 서술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덕이 의술은 알지 못하면서도 치충 제거에 뛰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녀의 전문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전반적인 의료 지식이 없이 어느 한 분야에서 특출난 경우 의녀로 선발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장덕은 제주 출신인데 역대로 이 지역에서 치충

12) 의녀들의 구체적인 활동 양상에 대해서는 박선미, 1994: 안상경 2000 등 참조.

13) 의녀에게 상을 내린 예는 세종 22년 궁중이 풍병을 앓았는데 온천에 목욕하고 의원과 의녀가 약을 잘 써 병을 치료하여 그 공로로 양홍수 노중례에게는 내구마 각 한 필을, 의녀 소비에게는 쌀 여섯 섬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고, 중종년간의 의녀 (대)장금도 여러 차례 상을 받은 기록이 보인다.

14) 간통의 경우에는 성종5년 녹사 최언진이 지아비가 있는 의녀 귀금을 간통한 사건이 있었으며, 연산군 때의 의녀 개금, 덕금, 고은지 등이 임금을 비방하였다는 기사가 보인다.

15) 뱀·지네·두꺼비 등의 독으로 만든 독약을 사람에게 몰래 먹여서 배앓이·가슴앓이·토혈(吐血)·하혈(下血)·부종(浮腫) 등의 증세를 일으켜 점차 미치거나 실신하여 죽게 만드는 일을 말한다.

16) 『成宗實錄』 成宗23年 6月 14日 癸丑: 右承旨權景禧啓曰: “濟州醫女張徳, 能去齒蟲, 如鼻眼凡病瘡處皆去之. 將死, 傳其術於私婢貴今, 國家贖爲女醫, 欲廣傳其術, 使二女醫從行, 貴今秘不傳. 近有黃乙者, 善治蠱毒而秘之, 刑問三次, 然後乃言. 女醫粉伊習其術而不及黃乙, 是不盡傳其術也, 請拷貴今問之.” 命召貴今, 問曰: “使女醫二人從行, 汝秘不傳, 必欲獨擅其利也. 汝若固諱, 當拷掠問, 其悉言之.” 貴今曰: “我自七歲始學此術, 至十六歲乃成, 今我非不盡心教, 彼不能習耳.”

17) 成倪 撰, 『慵齋叢話』 卷 10: “有一女 來自濟州 不知醫術 惟去齒虫 士大夫家爭相邀致…”

을 치료했던 의녀들이 계속 배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세종 시대 다음과 같은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제주에 사는 孝德이란 여인은 眛眼塵沙<sup>18)</sup>、嚙齒喉蟲<sup>19)</sup>을 제거하므로 命召하여 쌀과 콩을 아울러 5 석, 鹽醬 및 면포·정포 각 3필을 주었다.<sup>20)</sup>

이같은 사정은 성종이 장덕이 죽은 후 제주목사 허희에게 내린 다음과 같은 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잇병을 고치는 醫女 長德은 이미 죽고 이제 그 일을 아는 자가 없으니, 이·눈·귀 등 여러가지 아픈 곳에서 벌레를 잘 제거하는 사람이면 남녀를 물론하고 抄錄하여 보내라.<sup>21)</sup>

다음 치충의 치료 기술을 사비인 귀금에게 전해주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로 관비 중에서 선발하여 일정한 교육 과정을 거친 후 의녀로 활동하게 한 것이 보통이었다고 생각되지만 귀금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관노비가 아닌 사노비에게 그것을 전수시켜 주고 국가에서는 면천까지 시켜주면서 그 기술을 널리 전하고자 했다면 이는 제도에는 보이지 않는 특수한 케이스라 할 수 있다. 그만큼 그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많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고독의 치료술과 관련하여 ‘그 이익을 독차지하고자 함이 아니냐?’ 고 말한 것을 통해서 귀금이 이를 통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의녀 귀금의 활동 범위가 단순히 왕실의 영역을 벗어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치료의 대가를 받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일곱 살 때부터 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여 열여섯 살이 되어서야 완성하였다는 것을 통해 상당히 오랜 기간의 훈련 과정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현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고독이라는 것이 약간 수술적인 성격이 강하고 사람들의 관념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중요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국가에서도 의녀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음은 분명한 것 같다. 이는 성종16년(1485)의 다음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中和郡에 사는 正兵 黃乙과 그 아우 黃末同이 蠱毒으로 말미암은 병을 잘 고친다는 말을 임금이 듣고 驛傳으로 불러 서울로 오게 하였는데, 치료에 효험이 많았으므로, 임금이 그 기술을 널리 전하고자 하여 女醫를 就學시켰다. 이어서 傳敎하기를, “네가 상세히 가르쳐서 배워 익힌 자가 과연 신기한 효험을 갖게 한다면 네 집의 賦役을 면제하겠다.” 하였으나, 황을 등이 제 기술을 감추려고 상세히 가르치지 않았다. 임금이 불려서 물어도 곧바로 아뢰지 않고 말하는 데에 속인 것이 많았으므로, 전교하기를, “황을 등이 제 기술을 가르쳐서 과연 신기한 효험을 보이면 그 자신의 부역을 면제할 뿐만 아니라 자손의 부역까지 면제하려 하였다. 그러면 이제 그 형제가 다 제 기술을 감추고 속이는 것이 많이 있으니, 義禁府에 회부하여 拷訊하여서 아뢰라.” 하였다.<sup>22)</sup>

위의 기사를 통해 고독의 치료술을 국가가 취하기 위해 자손까지 부역을 면제시켜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18) 이 증상은 『東醫寶鑑』, 「外形篇」 卷1, “眼門”에서 “眛目飛塵飛絲”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19) ‘喉蟲’의 증상은 『東醫寶鑑』, 「外形篇」 卷2, “咽喉門”의 尸咽에서 “①…故令尸蟲發動, 上蝕於喉, 或痒或疼, 如蠶之候也. ② 與傷寒狐惑同”(시충이 움직여 위로 올라와 목구멍을 파먹는 것이다. 간혹 가렵거나 아픈 것이 감늉의 증상과 같다. 상한호흡증과 같다.)과 同書 「雜病篇」 卷3, “寒門(下)”의 狐惑證에서 “…此因大病後, 腸胃空虛, 三蟲求食, 食人五藏, 蝕其喉則爲惑, 其聲啞…”(이것은 큰 병을 앓은 후 장위가 텅 비어 삼충이 먹을 것을 구하다가 사람의 오장을 먹는 것이다. 기도를 먹는 것을 혹이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라 한 증상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된다.

20) 『世宗實錄』 世宗13年 5月 6日 己巳; “有濟州女孝德能去眛眼塵沙、嚙齒喉蟲, 命召, 給米豆并五石、鹽醬蒜布正布各三匹.”

21) 『成宗實錄』, 成宗19年 9月 28日 戊子; “治齒醫女長德已死, 今無傳業者. 齒、目、鼻諸般痛處能取蟲人, 勿論男女抄送.”

22) 『成宗實錄』, 成宗16年 3月 11日 壬辰; 中和郡居正兵黃乙與其弟黃末同, 善治蠱毒之疾. 上聞之, 驛召至京, 治療多效. 上欲廣傳其術, 使女醫, 就學. 仍傳曰: “爾若詳悉教誨, 使傳習者, 果有神效, 則當復爾戶.” 黃乙等, 欲秘其術, 不詳悉誨之. 雖蒙召問, 又不直啓, 所言多詐. 傳曰: “黃乙等, 若教誨其術, 果見神效, 則非唯復其身, 欲永復子孫. 今其兄弟, 皆秘其術, 多有詐罔. 其下義禁府, 拷訊以啓.”

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 그 기술을 여 의에게 전수시키라 한 것은 귀금이 이전부터 어느 정도 고독 치료술을 연마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결국 조선시대 의녀 중에서 특별한 치료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를 통해 면천과 같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졌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결론

본고에서는 유교적 속박과 관기라는 신분의 굴레 속에서 활동했던 조선 전기의 의녀 모습의 일단을 고찰하였다. 10~15세라는 어린 나이에 선발되어 다양한 교육 과정을 거쳐 의녀로 양성되었던 그녀들은 조선시대 의료인으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였다. 물론 시대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인들이 꺼려할만한 여러 가지 잡역에도 종사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특정한 전문 영역에서 특출한 능력을 발휘하여 그들의 존재 가치를 일깨워주기도 하였으니 본고에서 다룬 장덕과 귀금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이들을 ‘전문의녀’라 하였지만 조선전기의 의녀들이 모두 ‘전문의녀’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대다수의 의녀들은 남의를 보조하거나 산부인과 등 몇몇 특수한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장덕과 귀금의 경우처럼 실록에 실명이 거론될 정도로 어느 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던 의녀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비록 특수한 사례라 할지라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들 전문의녀의 선발과정은 일반적인 의녀와는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즉 일반적으로 의녀가 10~15세의 選上 기녀 중에서 선발되어 정규적인 양성 과정을 거쳐 탄생하는 것과는 달리 이들은 특수한 기술을 지닌 장점으로 인해 그러한 정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탁되었던 것이다. 이는 장덕 사후 제주목사에 게 후임자를 물색하라는 기사 내용과 고독 치료술을

귀금에게 전수하라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녀라는 한계 때문에 정확한 생몰연대나 부모가 누구였는지 등 기본적인 개인 정보도 알 수 없지만 이들이 존재감을 역사적 사실로 증명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더욱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조선왕조실록』
2. 成倪 撰, 『慵齋叢話』
3. 김두중, 「근세조선의 의녀제도에 관한 연구」, 『아세아 여성연구』1, 숙명여대 아세아여성연구소, 1962.
4.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自家出版, 1963.
5. 김성균, 「한국여의제도창설략고」, 『백산학보』 3, 1967.
6. 한남혁, 「한국의녀고」, 『서울의대잡지』 9권 1호, 1968.
7. 손홍열, 『한국중세의 의료제도연구』, 수서원, 1986.
8. 성수현, 「조선시대 의녀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9. 박선미, 「조선시대 의녀교육 연구-그 양성과 활동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0. 박선미, 「영정조 연간 의녀제도의 변이양상과 그 교육적 의미」, 『국제여성연구소 연구논총』 9, 2000.
11. 문성희, 「조선후기 의녀의 활동과 사회적 지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2. 안상경, 「조선시대의 의녀제도에 관한 연구」, 경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3. 이민정, 「조선후기 의녀제도의 운영-17세기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4. 김미은, 「조선시대 의녀제도에 관한 고찰」,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5. 최순예, 「조선전기 의녀제의 성립과 의녀의 활동양상」,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